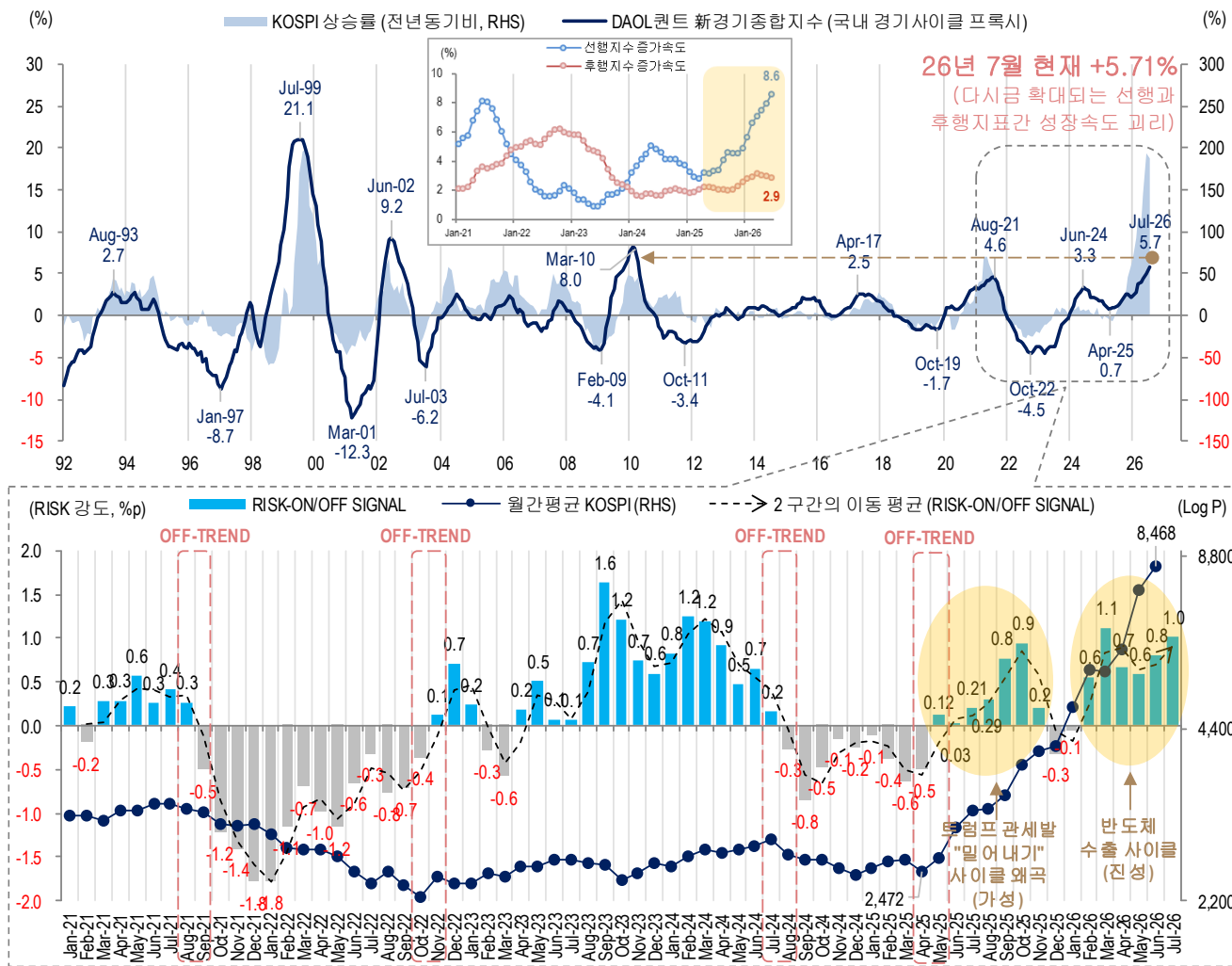




현 위치는 경기 소사이클 중 여전히 초입부



Source: 통계청, DAOL투자증권

- 지난달을 기점으로 국내 경기 사이클은 21년 8월의 고점마저 돌파한 이후 새로운 벤치마크로 17년 전 "차화정" 때의 경기 확장국면을 제시. 특히, 올해 5월 이후 선행 및 후행지표간 성장속도 괴리가 재차 확대되며 RISK-ON에 대한 강도 역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
- 이번달 산업활동동향 특이점은 미래를 반영하는 금융시장, 교역조건, 수주 등은 좋은데, 재고 사이클, 내수 설비 흐름은 아직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선행은 뜨고, 후행은 못따라 오느" 괴리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의 초입을 의미하는 만큼 매우 우호적인 국면.
- 현 상반기가 반도체를 필두로한 "실적장세"라면,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에서 전개될 우호적인 금융환경 속 "멀티플 리레이팅" 국면이라는 시각 지속 유지 (2026년 연간전망 참조 - 25년 11월 발간). 다만, 올해 외생변수인 이란전쟁이 현 시점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이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쇼크를 의미하는 만큼, 기존 전망을 180도 뒤바꾸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 유의 (i.e. 해당 판단 기준은 미국 Core CPI에 고물가 전이 여부가 될 것)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를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